

인간과 하천

1

River & Culture



이 자 영 | (주)EDI환경디자인팀장
(lly3331@hanmail.net)

전주기행 그리고 남천교 경관설계 뒷이야기

1. 프롤로그

전라도의 '전'은 전주요, '라'는 나주를 뜻함에서, 과거 전주의 도시세력이 지금과 달리 상당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 여기에 더해, 요즘 서울의 '뜨는' 동네인 삼청동이나 북촌 한옥마을 덕에 더욱 럭셔리해 보이는 기와집들이 도심 속에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니, 전주에 가면 왠지 팔자결음으로 골목을 어슬렁거리다, 배고프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을 먹고, 배부르면 정자에 올라 쉬어~ 경치구경이나 하는 '양반놀이 컨셉'의 여행이 가능할 것 같다. 너무 더우면, 갖춰 입기도 힘들테니, 유월, 전주기행에 딱이지 아니한가. 지금 나는 전주로 향하고 있다.

2. 여향 전주 그리고 전주의 큰 인물 태조 이성계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전주의 팔자도 화알짝 피었으리라. 비록 이성계가 전주에서 나고 자란 것은 아니나, 명실공히 전주이씨 후손인 덕에 전주는 하루아침에 '여향', 즉 임금님의 고향이 되었다. 무려 500년을 지속한 왕조였기에, 전주 역시 행정, 산업, 주거 등은 물론 문화면에서도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 전주의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들, 서예, 공예, 판소리,

음식문화 등은 이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러면 어왕 전주에 온 김에 전주의 위상을 드높인 태조 이성계(이하 이태조)에 대해 알고 가자.

조선시대 임금이라면 대개, 세종이나 영조, 정조 등을 떠올린다. 그들에 비해 태조 이성계는 한 시대를 연 개국자임에도 위세가 작게 느껴진다. 보통, 새로운 나라를 연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뽀기를 주고 갔다는 식의 건국신화라든가, 믿거나 말거나 앞에서 태어났다고 우기는 탄생신화가 붙기 마련인데, 태조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경우, 대하드라마와 장편소설 속에서 그는 이미 어렸을 적부터 범상치 않았던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중국의 한나라를 연 유방 이야기를 담은 수호지는 10권 짜리가 한 세트이다. 이에 반해 이성계를 주인공으로 한 책은 딱 한권이다. 그나마도 제목이 '시골무사 이성계(다산책방, 서권)'란다. 그래서 더 궁금해져 이성계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도 인간적인 권력자도 있구나 싶다.

전주이씨는 사실 오래전에 전주를 떠났다. 이성계의 고조부 때 지방관료(지금의 도지사격)와 사이가 나빠 전주를 버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무슨 하늘의 뜻인지 지방관료가 삼척으로 발령나 다시 만나게 되자, 아예 원나라 간도 지방으로 이민을 가서 다루가치(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을 간섭

하기 위해 설치한 민정(民政) 담당자가 된다. 그러다가 태조의 아버지 환조는 공민왕의 복각 회수운동에 협력하여, 녹을 먹던 원나라를 배신하고 다시 조국의 품, 고려로 귀의하게 된다. 태조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군인이 되는데, 시골 변방, 그것도 척박하고 외졌으며 끄덕하면 외적과 싸움판이 벌어지는 3D (Difficult-Dirty-Dangerous) 직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멋지게 외적을 소탕하며, 국가안보와 지역평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바, 중요 벼슬을 거치면서 인지도를 넓히고 세를 키운다. 그렇게 자수성가한 그에게 시련이 닥치니 중국의 새로운 강자, 명나라는 공민왕 때 회수해간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온 것이다. 이에 최영장군과 고려의 우왕은 이침에 아예 전쟁을 일으켜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세운다. 이성계는 이 전쟁을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끝내 최영장군의 명을 받아 출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무슨 하늘의 뜻일까. 마치 하늘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듯, 큰 비를 만나게 되고, 태조는 회군과 함께 쿠데타(성공한 쿠데타이니 혁명이라고 불러야 하나?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결국 최영장군과 정몽주 등 고려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부하장수이자 오른팔이었던 정도전과 연합하여 새로운 나라를 열게 된다. 그의 나이 마흔 일곱이다.

그러나 세자책봉에서 비극은 시작된다. 이미 죽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여섯이요, 딸이 둘이었으며, 목숨을 걸고 내조한 현재의 부인 사이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둔 '복잡한 가정사'는 한 나라를 피로 물들게 한다. 그 강인하고 잔인한 성격 탓에 이방원은 자타공인 개국의 일등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과 태조가 꿈꾸었던 새로운 유토피아에

는 맞지 않는 '부적격 왕세자'였을 뿐이었다. 결국 배다른 동생이 세자로 책봉되는데, 이에 분노한 이방원은 자신에게 방해되는 형제들은 물론 친인척과 정도전을 비롯한 명망 높은 신하까지 모조리 칼로써 제거하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골육상잔의 비극을, 눈에 흠 들어갈 날 아직 멀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했던 이성계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앞에 인생무상을 느끼고, 겨우 6년 만에 스스로 왕위를 물러나 강원도 함흥으로 칩거하게 된다.

훗날, 불효를 저지른 이방원이 여러 차례 차사(임금의 신하)를 보내지만 그때마다 차사를 죽여 보내버리는데서 생겨난 말이 '함흥차사'라고 하는데, 애꿎은 차사가 무슨 죄란 말인가... 쫓쫓... 어쨌든 이 일을 빌어 태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겠다. 이후 태종 이방원은 불효를 만회코자 그리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데, 그중 하나가 전주에 세운 경기전이며, 경기전 안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초상화)이 모셔져 있다.

조선 왕실의 상징이자, 고귀한 임금님의 초상화가 모셔진 성스러운 장소 경기전, 그리고 전주는 임금님의 고향으로서 우대된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과 인재등용 등으로 도시는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 전주 하면 양반도시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렷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주는 이미 잘나가는 도시였으나(특히 후백제의 수도였음), 현재 전주의 이미지에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한 시대사조는 조선시대인 것이다.

남천교 설계 뒷이야기까지 이제 골목 하나 돌았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자.

조선시대에 꽃피운 전주대표 문화브랜드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천 그리고 남천교의 위치도

3. 전주한옥마을 돌아보기

차를 몰고 전주로 향한다. 목적지는 숙소인 전주 한옥빌리지이다. 이제 5분 남았다고 네비에서 알려주는 순간, 옹기니! 전동성당의 꼭대기가 보이는 게 진짜 다왔구나. 정말 다왔구나. 먼저 여장을 풀 호텔을 찾았다. 시장골목에 위치한 한옥호

텔의 세련된 외관이 주변과 대조되면서도, 온천장, 여관의 간판과 늘어진 전깃줄, 아무렇게나 달린 건축물의 배관과 계기판들이 또 이상하게 묘한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시간이 멈춰버린 70년대 골목에 들어선 느낌이다. 70년대이든, 조선시대이든, 과거라는 프레임에 갇혀보는 경험은 언제나 설레인다.

숙소를 나와 풍남문에 이른다. 전주읍성의 남문으로 생각보



전주한옥마을의 랜드마크, 전동성당



여관골목에 위치한 한옥호텔

다 큰 스케일에 멋스러운 건축디자인이 이 지역 일대의 시장의 품격을 높여주는 듯 하다. 안타까운 건 로터리 중심구조로 역할하고 있어 번잡하고(교통량이 상당함) 한옥마을과 바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도로로 둘러싸인 송례문, 광화문광장, 그리고 이곳 풍남문. 왜 우리나라 많은 문화재들은 로터리 섬에 갇혀있는 걸까 생각하며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골목시장에서 보여지는 풍남문



로터리 녹지섬 안에 고립된 풍남문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옥마을

휴일에 찾아서인지 한옥마을을 찾은 많은 사람들로 더욱 활기가 넘쳤다. 손에 풍선을 쥐 어린아이부터 팔짱을 끼고 미니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 전국 명소가면 반드시 보게 되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들은 물론이요, 한복 입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이곳에 있었다.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의 맛과 서비스를 보증하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옥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을 붙잡는다.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아가지기하고 이쁜 '살 것'들이 뿔내며 손님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살 것에는 열쇠고리와 악세사리는 물론 전 주 대표상품인 부채와 각종 공예품 등 다양하다. 결국 나도 지갑을 열고 말았다.

한옥마을에서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거리를 걸으면 그것이 노는 것이다. 멋드러진 한옥들은 물론이요, 저마다 정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간판들도 볼거리다. 어떤 건물은 전통 한옥을 표방하며 위엄을 드러내지만, 어떤 건물은 콘크리트건물에 전통의 멋을 가미했지만, 묘하게 조화되면서, 포스트 모던 같은 세련됨을 보여준다. 물건을 파는 곳과 음식을 파는 곳과 문화를 파는 곳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게 전주 비빔밥마냥 다채롭다.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민속촌처럼 온통 옛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스펙트럼을 담고 있어 더욱 즐겁다.



소품으로 놓여진 노란 버스



팥빙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콘크리트 양옥건물도 이빠보이게 하는 방법



옹기종이가 모여있는 기와집들

건다가 힘들면 어김없이 정자나 벤치가 튀어나오는데, 시원한 물소리의 물레방아 옆이거나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도랑 옆에 위치한다. 어떤 식당은 팥빙수와 단팥죽만을 파는데 기

다리는 손님들로 북적북적하다. 또 어떤 식당은 미로찾기마냥 골목 굽이굽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이쁜 정원이 딸린 한옥에, 가격도 너무 착하니 보물찾기가 따로 없다.



즐거운 골목길



심플한 멋의 대문



멋스러운 간판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하릴 없이 돌아다니기'와 '먹기'만으로 하루가 축삭 지나가버리는 곳, 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한옥마을이지만, 미래의 메시지가 담긴 곳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남천교는 이러한 한옥마을의 관문교량이다.



양옥인 듯 한옥인 듯



골목길 보물찾기 끝에 나온 식당



기와와 벽돌, 목재와 유리의 조화

4. 남천교 경관설계 이야기

이 이야기를 꺼낼라치면 5년 전 기억을 꺼내야한다. 2007년 여름, 우리 회사의 남천교 경관설계를 담당하던 팀장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팀장으로 긴급투입 되었고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다리를 만드는 '기술'보다는 '디자인'이 포커스였으며, '왜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주처는 물론, 꼬장꼬장한 자문위원들, 자부심 강한 전주시민들을 잘 설득해야 하는, 다소 괴근한 프로젝트였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경관, 그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냐?'라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경관 자체가 논리적 근거'로서 설득력을 갖추어야 했다.

"지역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닌 남천교를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논쟁의 요지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당시 브리핑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step 1. 먼저,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답: 정체성은 '얼'이며 '정신'이다.

정체성, Identity는 우리말로 얼이다. 얼은, 정신으로, 겉보다는 내면이다. 색이나 형태 등 외양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섞일 수도 있지만, 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신은 모양이 바뀌어도 그대로다. 이러한 정체성을 도시에 빚대어 생각해보면, 안으로는 통일되게 하는 힘을 가지면서, 외부와는 차별되게 해준다. 우리는 남천교 디자인에 답아야 할 정체성을 찾는 중이다.

step 2. 남천교를 옛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

답: 아니다.

왜냐하면, 남천교는 한옥마을의 관문교량으로서 한옥마을에 속하는 하나의 경관자원인데, 한옥마을 자체가 민속촌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대와 조화되고 미래를 지향하는, 한마디로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진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step 3. 그렇다면 남천교를 '전통적 이미지'로 해야 하는가?

답: 그렇다.

한옥마을의 가장 큰 가치는 전통을 바탕으로 세운 현대와 미래의 공존이다. 한옥마을의 입구에 위치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할 남천교 역시 그러한 한옥마을의 가치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멀리서 크게 봤을 때 남천교는 전통의 옷을 입고 있으나 구조와 디테일에 있어서는 우리 시대의 기술과 문화가 담겨있는 것이 좋겠다.

step 4. 전통적 코드로 디자인한다면, 그것은 어느 시대를

모티브로 해야 하는가?

답: 조선시대이다.

전주는 조선시대가 아닌 그 이전부터 이미 규모 있는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주하였다. 삼국시대에도 나름 의미 있는 역사가 있으며 구석기나 고려시대 관련해서도 뭔가 있겠지. 그러나 지금의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재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서부터 근대에 만들어졌으며(특히 한옥촌은 일제 강점기임), 한옥마을의 중요 장소인 경기전에는 태조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듯, 조선시대 선조들은 전주를 어항으로 인식하였으며, 전주문화의 발전은 조선을 기반으로 꽃피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step 5. 이 교량은 어떤 프로그램을 답아야 하는가?

답: 전주천 풍경놀이와 축제

특히 남천교는 강을 건너는 구조적 기능 이상이었을 것이다. 일단 전주천의 풍경이 참 볼만한 것인데, 굳이 이유를 들자면, 순전히 사심에서 우러난 생각이지만,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장 보기에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폭을 지니고 있다. 너무 넓은 강은 너무 막막해서 내 마음이 깊이도 모르는 물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듯한, 약간은 우울한 느낌이 필시 있다. 또 좁은 강물은 물이 흘러가는 품새가 귀엽긴 하나 방정맞아 사람을 들뜨게 한다.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강은, 사람의 시선각에 강의 폭이 편안하게 들어오면서 강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사이즈를 제공한다. 거기에 강 주변으로 높은 산이 가까이 병풍처럼 둘러쳐진다면, 강

의 자연(푸름)은 더욱 진하게 느껴지면서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보여주게 되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전주천은 딱 그러한 강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하천 풍경을 감상하고자, 가장 좋은 전망포인트를 찾아 선조들은 '정자'라는 것을 지었다. 전주천에도 여러 개의 정자가 있는데, 남천교 인근으로 한벽당이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전주천 풍경놀이를 위해 한벽당에 올랐을 사람이 인구 천명당 몇 명이었을까? 천민은 꿈도 못 꿀 터이고, 양인들도 자기 생활에 바빠 힘들었을 것이다. 정자라는 것은 결국 양반들의 문화장소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반면, 남천교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다리이며, 따라서 남천교는 모두에게 평등한 조망장소이다. 정자는 그곳을 목적으로 애써서 찾아가야 하지만, 다리는 그곳이 목적이 아니라도 지나가는 길에 건너기도 하고, 건너다 잠깐 쉴 수도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열린 조망장소로서의 남천교'는 남천교가 담아야 할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축제이다. 과거 남천교에서는 지신밧기놀이가 행해졌다고 한다. 남천교에서의 지신밧기놀이라... 굳이 무대세트를 세우지 않아도 전주천과 전주천을 둘러싼 산들이 실경산수화로써 멋진 무대배경이 되는 한편의 뮤지컬이 아닌가. 예부터 전해오는 소중한 우리 문화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며 공동체일원임을 느끼게 해주는 축제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이다.

전체 과제 : 남천교 디자인에 담아야 할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

전체 과제의 답 : 단순히 강을 건너는 기능 말고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프레임과 액자가 되는 장소를 만들자. 축제 때는 차량통행을 막고 멋진 무대와 객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전통코드로 디자인하되, 도시에 지어지는 구조물이니만큼 다양한 경관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랜드마크이나, 한없이 높거나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폭에 안정감을 있게 착안하지는 정도의 사이즈가 좋겠다. 결국 남천교 디자인이 담아야 할 정체성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다리" 정도가 되

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우리가 제안하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5. 에필로그

왜 조선시대여야 하나고 따지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 특히 백제 때 전주가 꽤 잘나가던 동네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 설득에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조선코드가 설득이 되어야, 조선시대 양식을 모티브로 교명주나 난간장식을 디자인하는 것이 설득이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설득은 성공했고 교명주와 교량 측면 물이 나오는 배수구를 용으로 장식했다. 난간도 조선시대 때 많이 쓰인 연화문양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중 교명주는 심플한 서예가 있는 직육면체 조각품으로 대체되었는데, 기독교단체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용을 세우는 것에 대해 열렬히 반대를 했더라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전주하면 서예니

까, 지금의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무 화려하게 뽑내는 것보다 조금은 투박하면서 우아하게 멋내는 게 한옥마을

중이었다. 5살난 아들은 그곳에 있던 세 살배기 여자아이와 마루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아이들

에게는 그냥 놀이터였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새로 지어진 남천교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디자인에 참여하는 나로서는 디테일에 있어 아쉽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하다. 그 시절, 뜨거운 논쟁과 설득의 과정에서 함께 했던 기술자분들, 회사 사장님과 동료들에게는 감사, 본의 아니게 각을 세웠던 관계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경관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나 전해오는 이야기 등 인문학적 자료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이 일대일 대응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나, 생각의 기초를 만드는 데는 필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영향이란 게 간접적이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인문학적 자료를 너

에 어울리니까.

교량에는 풍경을 절단 내는 가로등이 없다. 대신 보도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지석에 조명기능을 추가하였다. 아쉬운 점은 차도가 아스팔트 포장에 보도와 단차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이나 배수, 교통흐름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축제를 고려한다면, 보도와 차량의 단차를 없애고 같은 화강석 블록포장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교량을 세우면서 교차로의 신호등과 가로등을 갈색으로 처리하여 조화를 꾀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인다.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 않나. “신은 디테일에 있다.”(건축가 반데어로에)

전주기행 중 남천교를 들렀을 때,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남천교에서 쉬거나 명상하거나 대화하거나 누구를 기다리는

무나 직접적으로(사실적으로) 활용해서는 대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애초 이 글은 장소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의 결과가 경관디자인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을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글솜씨가 부족하여 글이 너무 길어졌다. 각성하며, 여기서 이만 즐거웠던 전주기행을 마치고자 한다. 🌊

